

한양대학교 2025학년도 논술전형

인문계열 (오후 2)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가)의 문제 상황에 대한 (나)와 (다)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서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인간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보통 3주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급속도로 쇠약해지며 심각한 기아 상태에 놓인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어린아이의 경우, 더 급속도로 쇠약해진다. 우선 몸에 비축해두었던 당분이 바닥나고, 이어서 지방마저 모두 소진된다. 탈진 상태에 놓인 아이들은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면역 체계도 무너진다. 이렇게 되면 근육도 파괴되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게 된다. 결국, 힘이 다 빠져버린 아이들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는다.

2024년에 발표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절대 빈곤층인 세계 기아 인구수는 약 7억 3,300만 명이다. 이는 전 세계 인구 11명 중 1명이 심각한 기아 상태에 놓여 있거나 놓일 위기에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기아 문제가 더 심각한데, 아프리카 인구 5명 중 1명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참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아 구호단체에 더 많은 기부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각자가 기아 구호단체에 더 많이 기부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기아 구호단체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기부하면 그는 도덕적 칭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설령 그가 기아 구호단체에 전혀 기부하지 않더라도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 과연 우리가 기아 구호단체에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그저 선택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기아 구호단체에 우리가 지닌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기부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 우리가 지닌 재산에서 얼마나 많이 기부해야 하는가?

(나)

누군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은 분명 나쁜 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능력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라면, 예외 없이 그러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도덕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어린 딸이 물에 빠져 고통받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상황에서 갑이 물에 빠진 딸을 구할 능력이 있다면 갑은 딸을 구해야만 할 것이다. 갑이 자신의 딸을 구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딸을 구하는 과정에서 갑의 신발과 옷이 더러워질 수 있고 이를 세탁하기 위해 일정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딸의 목숨과 비교할 때 이러한 손해는 분명 덜 중요한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유로 갑이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재산 대부분을 사용해야 하더라도 갑은 딸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희생도 한 생명의 가치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물에 빠져 고통받으며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갑의 딸이 아닌 낯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똑같이 중요하고 누군가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모든 인간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나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이 같은 것이라면, 내가 느끼는 고통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모든 인간의 이익과 손해는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받아들이면 이 점은 더 분명하다.

(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다.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닌 신체, 재산 등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기본권이 있다.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무엇인지 따질 때 이러한 기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신장병을 앓고 있는 을에게 갑이 자신의 신장 중 하나를 주면 을이 신장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보자. 이 상황에서 갑은 을에게 자신의 신장을 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갑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 의무를 지니는지 판단할 때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공과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부지런한 갑은 식량이 부족한 겨울을 나기 위해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하며 충분한 식량을 비축했지만, 갑의 이웃인 게으른 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다고 해보자. 겨울이 오고 식량 부족으로 을이 고통을 겪을 때 갑은 을에게 자신이 비축한 식량을 나눠줘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갑은 겨울이 오기 전 열심히 일했지만, 을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에 따라 발생하는 공과를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마지막으로, 누구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인간은 낯선 사람보다 자신의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예를 들어 갑이 어떤 낯선 다섯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면 자신의 딸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보자. 갑은 자신의 딸 대신 낯선 다섯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 갑에게는 자신의 딸의 생명이 낯선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